

북한 문학교육의 사회교육적 양상에 관한 연구

- 『청년문학』을 중심으로 -

정 재 찬* · 임 인 화**

(한양대학교 교수)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 차례 >

- 1. 서론
- 2. 북한문학교육의 실태
- 3. 『청년문학과 북한 문학교육
- 4. 결론
<참고문헌>

<국문 요약>

이 글은 북한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되는 북한 문예지 『청년문학』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한 문학교육의 사회교육적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 테제에 따라 체제 유지 및 선전에 필요한 공산주의 인간형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문학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학교교육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차원에서도 문학의 힘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대표적인 교육매체 중 하나가 문학잡지이다. 북한의 잡지는 모두 당에서 출간되는데, 문학교육과 관련된 잡지로는 『조선문학』, 『아동문학』, 『청년문학』 등이 있다. 이 중 『청년문학』은 주 독자층을 14~30세의 청년으로 한정하며 전문 작가만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의 작품도 수록하며, 이에 대한 전문작가의 평론까지 게시하고 있어 문학교육 측면에서 주목을 끈다.

* 제1 저자
** 제2 저자

본고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발간된 월간 『청년문학』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장르별, 주제별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문학』에 수록된 작품의 장르 및 작가, 주제별 양상을 분석하는 한편, 북한 청소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교육의 모습을 살피고자 하였다.

◎ 주제어: 통일교육, 문학교육, 북한 문학교육, 북한 사회교육, 청년문학

1. 서론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지 올해로 70년이 되었다. 해방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찾아온 분단은 급기야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의 상처를 서로에게 남긴 채 고착화되었고, 이로 인해 혈연공동체이자 언어공동체로서의 한민족은 반세기가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념과 문화를 달리하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화되고 말았다. 비록 1990년대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로 인해 냉전은 종식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후 남북한 모두 서로의 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기존과 다른 통일의 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해 왔다 하더라도, 남북이 모두 동의하는 통일안을 마련하기는 여전히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반면 우리는 당장에라도 불시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통일 대박론’까지 이야기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러한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듯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욱 통일 이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절실해진다. 급변하는 과학기술로 인해 오늘날 미래학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듯이 통일 시대는 현재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전개될 것이기에 그에 대비하는 이른바 통일학의 정립이 현 시점에서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도 통일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교육은 시기와 대상 및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하나는 통일 이전 시기를 주로 상정하는 통일교육론으로서 남과 북의 객관적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좁히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연구이다.¹⁾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이 대부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과 북의 이질화 극복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회복과 통일된 민족문화 수립을 위해 교육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통일교육 논의를 보면 상대적으로 이 방면의 연구가 매우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의 가능성이 그간 희박해 보였던 탓도 있지만, 논증보다 상상력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논의의 성격으로 인해 학적 엄밀성을 갖추기가 힘든 점도 한 몫을 했으리라 추측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점에서 통일 준비 관련 연구는 현실적으로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된 이상 시나리오 기법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와 층위로 연구를 축적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어과 내에서도 이러한 방향의 통일교육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²⁾

통일교육과 관련된 문학교육 연구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북한 문학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축적되고 있는 데 비해 보면, 북한의 문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부터가 대단히 부족하다. 통일 이후 문학교육의 공동체적 지향점을 모색하려면 그에 앞서 남북 상호간 문학교육에 존재하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찾는 일부터 해야

1) 이러한 연구로는 한국교육개발원(1998),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등을 참조할 것. 한편 반공교육, 안보교육 차원에서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층위의 통일교육을 전개해 온 도덕과나 사회과 교육 차원의 논의들도 일괄해 둘 필요가 있다.

2) 국어과에서 통일교육 정책과 관련한 연구로는 최현섭(1999), 박영목·이인제(1998) 등이 있고, 교육과정 연구로는 최현섭 외(1996), 이인제(2005), 주재우(2015) 등이 있다. 통일 시대를 상정한 어문교육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는 전수태(2010), 김종신(2014) 등이 있고, 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는 김정우(2014)를 들 수 있다.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북한의 문학교육 중 사회교육 차원의 실태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기로 한다. 후술하겠지만, 북한의 문학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에 사회교육 차원에서도 행해지는데 문예잡지를 통한 교육이 그 대표적인 양상 가운데 하나를 차지한다. 이에 본고는 북한의 3대 문예지 중 하나인 『청년문학』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년문학』은 중학교 졸업 학년부터 대학생, 산업 현장의 청년들, 군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등 독자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며, 전문 문학 작가의 작품 외에 문학을 좋아하는 일반 애호가 및 순수 아마추어 청소년의 작품도 수록하는 점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수록된 작품이 수필이나 독후감류의 문학적 글에서부터 시, 소설, 평론 등 본격 문학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 청소년의 문학관, 창작 경향 등을 풍부하게 잘 드러내고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만 그 시대 변화 전모를 다 보일 수는 없어서 김정은 시대의 변화 양상에 한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2015년 4월 현재까지 총 677회 이상 발간된 『청년문학』 가운데 2012년 1월호부터 2014년 12월호까지 총 36회 분의 잡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북한 문학교육의 실태

2.1. 북한문학교육의 성격

북한의 교육정책은 해방 이후, 1945년 11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집행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가 그러하듯 초기의 북한 교육정책의 핵심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주의 교육학은 공산주의 교양에 관한 과학이다. 우

리 교육학은 조선 로동당의 정책을 구현한다. 조선 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은 유일하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이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구체화한 가장 정당한 로선과 정책이며, 또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혁명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우리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실천적 투쟁 강령으로 된다. 그러므로 교육 일꾼들이 교육 이론 연구에서나 교양-실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고도 정확하게 의거하여 그를 구체화하도록 투쟁하는 것은 그들의 제1차적인 임무로 된다.³⁾

이처럼 북한의 교육은 해방 후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조선 노동당의 강령과 정책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왔다.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투쟁하는 것이 교육 이론 연구나 실천의 최우선 임무라는 기본 관점은 변하지 않지만, 이른바 주체사상의 주창과 더불어 북한의 교육적 기조는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해방 이후 소련의 지원에 의해 북한의 정치 실세로 등극한 김일성은 자신을 제2의 스탈린으로 칭하고 스탈린의 정치방식과 인민교육방법, 경제체제의 형식을 그대로 추종하였으나,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흐루시초프가 강력하게 스탈린의 이론과 개인숭배를 비판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이에 김일성은 소련은 물론 중국의 모택동과도 구분 짓는 독자적 노선인 ‘주체사상’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기치로 하는 주체사상은 사회전체에 급속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교육의 핵심이념도 ‘주체사상’으로 완전히 대체된다. 이러한 북한 교육의 이념과 목적의 변화는 이 시기에 김일성이 제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잘 드러난다.

…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움으

3) 학우서방 편 (1960), 『교육학』, 학우서방출판사, 9~10쪽.

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위하여 복무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사업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 자신이다. 나라마다 처하여 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르며 혁명임무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교수교양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며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 키우는 구체적인 교육으로 되어야 한다.⁵⁾

요컨대 교육에 있어 주체사상의 핵심은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이익에 맞는 주체적인 교육을 통해 인민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인재로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국가 건설에 복무한다는 점에서는 기존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요체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요약된다. 김정일이 스스로 밝혔듯이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⁶⁾인 것이다.

문학 및 문학교육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다. 먼저 문학과 예술에 대한 김일성의 관점을 보자.

진실로 사실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문학과 예술을 통하여 생활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더 훌륭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리론만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시도 모르고 소설도 보지 않고서야 생활이 너무 메말라서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문학과 예술은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양수단의 하나입니다.⁷⁾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차

4) 사회과학원(1978),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후의고전적로작‘사회주의교육에 관한테제’해설논문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쪽.

5) 위의책, 19쪽.

6) 김정일(1991),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27쪽.

7) 김일성(1971), 『김일성저작선집 2권』, 평양:인민출판사, 356~357쪽

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습니다.⁸⁾

북한에서도 문학과 예술은 ‘교양’이지만 그 의미는 남한의 자유교양(liberal arts)로서의 문학 및 예술과는 사뭇 다르다. 즉 북한에서 말하는 교양으로서의 문학은 대중교양과 혁명화 같은 사상교양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요,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부합된 인민대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교육의 수단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러한 문학관과 교육관을 바탕으로 주체사상적인 문학교육관이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문학 교수의 목적은 학생들이 당 정책을 똑똑히 인식하고 장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될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그들을 공산주의 의식으로 교양하는 데 있다.⁹⁾

우리 학교들에서 문학예술교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후대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문학과 예술교육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에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비롯한 예능과목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의 고매한 덕성을 따라 배우도록 교양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그이께 다함없는 충성을 다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겠다는 충성의 결의로 충만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¹⁰⁾

이처럼 북한은 문학교육의 목적을 공산주의 사상 교양만이 아니라 ‘수

령’과 ‘지도자 선생’에게 충직한 혁명 전사를 양성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문학교육의 내용도 다음과 같은 사상교육적 내용으로 구성된다.

사상정서교양	정치사상교양	충실성 교양, 혁명정신 교양, 사회주의 도덕교양
	정서교양	정치 도덕적 정서, 미학적 정서
지식기능교육	지식교육	김일성과 김정일의 문예사상과 문예이론, 문학의 일반적 개념과 본질
	기능교육	여러 혁명적인 책들을 읽고 분석할 줄 아는 능력

[표 1] 북한 문학교육의 내용 체계¹¹⁾

내용체계의 큰 틀을 보면 사상정서 교양과 지식기능교육으로 양분된다. 전자는 김일성 및 김정일 가계 우상화와 충성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충실성 교양,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당정책 선전을 배우는 사회주의 도덕교양 등과 같은 정치사상교양과 김일성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정치도덕적 정서와 같은 내용¹²⁾이 주를 이루고 있다. 후자, 곧 지식기능교육에서도 문예사상과 문예이론이 존재하기는 하나 문학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예이론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결국 북한 문학교육의 목적은 문학지식과 문학감상과 같은 문학능력의 신장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교화시키는 사상교양에 있으며 문학교육의 내용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제제 및 내용만이 선택, 교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북한 문학교육의 체제

남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의 범위를 ‘학교 교육’으로 한정하며 문학능력을 배우고 익히는 시기를 주로 초등학교에

8) 김일성(1971), 『김일성저작선집 2권』, 인민출판사, 579쪽

9) 학우서방 편(1963), 『문학교수법』, 학우서방출판사, 113쪽.

10) 사회과학원 저(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 사회과학출판사, 226쪽

11) 홍지선(2013), 「북한 문학 교육 연구 : 『국어문학』 과 『문학』 교과서 비교 고찰」,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3쪽

12) 홍지선(2013), 앞의 논문, 43쪽

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시기로 한정한다. 즉 교과교육의 측면에서 말하는 문학교육은 학습자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문학을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 행하는 준비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북한의 문학교육은 교육의 목표를 문학을 통한 사상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어, 교육이 일어나는 시기와 현장에 관한 개념에서도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

사람은 날때부터 사상과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공산주의사회라고 하여 저절로 사람들이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반드시 교육과 교양을 통해서만 일정한 사상과 지식을 체득하며 혁명적인 사상 교양을 통해서만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다.¹³⁾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고 밖으로부터 자본주의 사상이 침습해 들어올 수 있으며 생활이 높아져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이 없어짐에 따라 사람들속에서 혁명하려는 열의가 점차 식어질수 있다.¹⁴⁾

제시된 글에서처럼 북한에서는 올바른 공산주의적 인간이 되기 위해 사상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상교육은 일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상교육의 한 수단인 문학교육은 전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사람은 성장단계에 따라 ‘가정교육단계’, ‘학교교육단계’, ‘사회교육단계’¹⁵⁾를 거치는 것으로 보되 각각이 서로 병진될 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본다.¹⁶⁾ 물론 가정과 학교와 사회라는 교육현장의

13) 전태성(1991) 『사상교양에 대한 주체적리론』, 사회과학출판사, 95쪽

14) 김정일(1984)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조선로동당출판사, 14쪽.

15)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교육이란 사회조직과 사회교양기관을 통한 교육을 의미한다.

16)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학교교육은 서로 뗄 수 없으며 이것은 언제나 병진

비중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교육의 중심은 역시 학교교육에 있다.

학교교육은 후대들의 지적 및 육체적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시기의 교육을 담당한다. 이 시기의 학교교육은 후대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주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¹⁷⁾

학교교육은 사회교육이나 가정교육에 비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성을 띤 목적의식적인 교육이다. …… 가장 합리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작성된 교육강령 그리고 교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에 의하여 후대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인재가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품도와 자질을 갖추게 한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사회교육, 가정교육에 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¹⁸⁾

하지만 남한과 비교하여 북한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혁명적 세계관 교양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로 보면서 또한 혁명적 사상의식의 심화와 완성을 위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병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교육은 주로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과 생산실천과정을 통하여 진행되는 교육으로서 가정과 학교교육을 계승하며 그를 더욱 보충 완성한다. 사람들을 혁명가로 교양양성하는데서 학교는 다만 그 기초를 마련하는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의 기초를 형성시켜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토대를 닦아준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실지생활과 결부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투쟁에 적용되어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에서 형성된 혁명적사상의식과 공산주의적도덕품모는 간고한 혁명실천을 통해서만 더욱 심화되고 완성된다. 그러므로 사회교육은 사람들을 간결한 혁명가로 육성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¹⁹⁾

시켜야 하며 옹계 배합하여야 한다. 김일성(1975), 『김일성저작선집 3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216쪽

17) 사회과학원 저(1975), 앞의 책, 259~260쪽

18) 사회과학원 저(1975), 앞의 책, 262쪽

북한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병진은 주로 조직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북한에서 학생들의 조직생활은 ‘소년단’과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이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학생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낮은반까지는 소년단에, 고등중학교 높은반부터 대학생은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에 의무로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다.

북한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고 조직에서는 사상교양에 적합한 문예 작품을 읽고, 쓰고, 평가한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등에 소속된 청소년들은 각 단체마다 존재하는 예술소조를 통해 근로인민들의 문학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학생들 속에서 과학소조, 예술소조, 체육소조를 비롯한 소조활동을 힘있게 벌리며 학생규찰대를 조직하여 웅변대회, 작문짓기대회, 과학토론회, 이야기모임, 시랑송모임, 음악감상모임, 예술경연대회, 영화감상모임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과외활동은 학생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전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인재로 키워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훈련과정으로도 되게 한다.²⁰⁾

이러한 양상을 볼 때 북한의 문학교육은 ‘학교’와 ‘사회’의 두 축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며 학교교육에서 시작된 문학교육은 소년대나 사로청 및 각종 소조와 같은 여러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강화되고 재생산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3. 『청년문학』과 북한문학교육

3.1. 청년문학의 연혁 및 구성

19) 박창호(1975), 『사회주의교육학』, 교육도서출판사, 197쪽

20) 사회과학원 저(1975), 앞의 책, 255쪽

『청년문학』은 4×6배판 크기의 약 60여 쪽으로 구성된 월간 잡지다. 1956년 3월 5일 작가동맹출판사에서 처음 발간되어 2013년까지 누적 통권 661호에 이르렀는데, 『조선문학』, 『아동문학』과 함께 북한을 대표하는 3대 문학잡지 가운데 하나다. 1961년 8월부터 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로 옮겨 발행되던 『청년문학』은 김일성의 대대적인 정치적 숙청과 그로 인해 생긴 문단의 후유증으로 70년 4월까지 발행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다시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문학예술종합출판사로 옮겨 발행되고 있다. 초기의 『청년문학』은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작품을 소개하며, 작품 창작을 위한 작법 및 평가, 창작 경험 등을 많이 실었으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북한 문학에 뿌리내리게 되면서 주체사상 찬양과 김일성 우상화라는 정치사상 교양의 측면이 훨씬 두드러지게 되었다. 『청년문학』의 구성은 월별로 보통 3~4개의 큰 주제를 정하는데, 대부분 북한의 명절, 기념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와 관련이 깊다.

3.2. 『청년문학』 수록 작품의 갈래 분석

여기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청년문학』은 2012년 1월호부터 2014년 12월호까지 수록된 문학 작품들이다.²¹⁾ 3년 동안 『청년문학』에는 총 1,222명의 1,302편에 이르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1) 장르별 분석

『청년문학』에 수록된 작품을 주요 장르별 분포를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21) 『청년문학』에 수록된 글 중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예컨대 김일성 회고록인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라든가 ‘가요’, ‘선전화’, ‘상식’, ‘문예상식’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작품편수	전체 작품 대비 비중
서정		846	64.9%
서사		193	14.8%
교술	수필	171	13.1%
	평론	36	2.7%
극		4	0.3%
기타 ²²⁾		52	

[표 2] 장르별 편수와 분포도

가장 많이 수록된 문학 장르는 64.9%의 비중을 차지한 서정 장르였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 것은 서정 장르가 길이가 짧으면서도 선진성이 뛰어나고 또 문학적 소양이 적은 사람도 비교적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물론 남한의 청소년 잡지와 비교해 볼 때 서정 장르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은 공통적이지만 북한의 경우는 남한보다도 그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서정 장르의 하위 갈래가 남한보다 다양한 점에도 기인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서사 장르가 14.8%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창작 단편 소설이 수록되었으나, 김일성 3대 부자와 관련된 설화나 전설, 일화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조선문학』이 고정적으로 단편소설을 4~5편씩 수록하는 것에 비해 보면, 『청년문학』은 소설 작품의 수록 편수가 매호 일정하지가 않은 편이다. 이는 『청년문학』이 본격 문학 잡지라기보다는 청소년 문학 애호가 잡지라는 성격에 가까운 탓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설보다 수필의 비중이 적다는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이 점은 확실히 남한의 일반적인 문예 작품 생산 경향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22) 기타에는 ‘작가일화’, ‘연단’, ‘결의’, ‘독자만향’, ‘정론’, ‘창작경험’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장르적 성격이 모호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2) 하위 갈래별 분석

위의 결과를 토대로 각 장르별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대표적인 장르인 서정 장르와 서사 장르의 하위 갈래별 세부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서정 장르의 하위 갈래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편수	비중 ²³⁾
시	662	78.3%
가사	120	14.2%
시초	44	5.2%
련시	7	0.8%
벽시	5	0.6%
단시	2	0.2%
답시	2	0.2%
서사	2	0.2%
장시	1	0.1%
풍자	1	0.1%

[표 3] 서정 장르 하위 갈래별 편수와 비중

『청년문학』에서는 일반적인 시로 볼 수 있는 작품들은 갈래별 표지를 붙이지 않지만 어떤 작품들은 제목에 해당 작품의 갈래를 병기하는 편집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병기된 세부 하위 갈래를 보면 ‘가사’, ‘시초’, ‘련시’, ‘벽시’, ‘단시’, ‘답시’, ‘장시’, ‘서사’, ‘풍자’²⁴⁾ 등이 있다. 즉 일반적인 시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서정 장르 안에 다양한 하위 갈래를 포섭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문학에서 현대 시문학의 형태는 크게 서정시와 서사시의 형태로 나뉘는데, 이 중 서정시 형태를 다시 세분화하여 송시, 서정시, 풍자시, 정론시, 벽시, 가사 등으로 구분하고, 서사시 형태는 서사시, 서정서사시, 답시 등으로 구분한다.²⁵⁾ 이처럼 하위 세부 갈래가 다

23) 갈래별 비중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다.

24) ‘풍자시’는 서정시의 한 장르로서 그 내용적 특성은 주로 남한 정치인과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을 다룬다.

양하게 발전하게 된 것은 ‘주체문학론’의 등장²⁶⁾과 관련이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전체 작품 가운데 일반적인 서정시 다음으로 많이 수록된 갈래가 가사라는 점이다. 북한에서 ‘가사’의 정의는 음악의 곡조에 대한 그 문학적 측면을 일컫는 가사(歌詞)와, 민족적 시가의 형태로 3·4 또는 4·4를 시행조직의 기본 음보로 보는 국문시가 양식의 가사(歌辭)의 혼합 형태를 일컫는다.²⁷⁾

우리 처음 교문으로 들어서던 날/ 백양나무 한그루 정히 심었지/
그사이 몰라보게 아지를 치고/푸르른 잎새 무성해졌네/
아 나무야 축복해다오/우리는 우리는 졸업반이다//
어디로 갈것인가 무엇이 될가/망설임도 물음도 소용없어라/
우릴 안아 키워준 당의 부름에/대답도 씩씩하게 성큼 나서니/
아 교정아 축복해다오/우리는 우리는 졸업반이다//
원수님 빛내시는 불패의 강국/더 좋은 래일을 가꿔가리라//
어머니조국은 밝은 미래를/우리에게 맡기고 떠밀어주네/
아 조국아 축복해다오/우리는 우리는 졸업반이다//

—조수련, 우리는 졸업반이다.²⁸⁾

노래로 불리는 대중성과 더불어 전통 시가 양식의 계승이란 점에서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가사 갈래 제작의 의도와 의의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3·4 또는 4·4 조는 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조 양반의 음풍농월하는 장형 가사를 그대로 계승할 리는 없다. 따라서 우선 노래로 불리는 제한된 시간 동안 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므로 작품의 길이는 짧아야 하고, 표현 역시 일반 서정시처럼 시적 구조의 복잡성과 다양성 및 감정의 지나친 비약을 피하고 통일적인 사상

감정을 간결하고 집중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특징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사’ 장르의 수록편수는 유독 다른 문예지에 비해 『청년문학』에서 높은 편이다. 동시기에 발행된 『조선문학』의 경우, 권당 평균 0.5편 정도의 가사가 수록된 데 비해, 『청년문학』에는 평균 3~4편의 가사가 수록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가사’ 창작을 많이 한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이러한 경향은 타 장르에 비해 ‘가사’의 창작이 용이하다는 점과 함께 북한에서 당정책가요창작사업에 중등일반기술 지식수준 이상을 가지며 남달리 감수성도 빠르고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²⁹⁾는 정책적인 면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시문학의 하위 갈래는 이처럼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낯선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문학』에 ‘단시’로 수록된 작품이다.

빨간 머리수건 쓰고/숨쉴듯 실을 뽑는/제사공처녀야/네 모습은 타오르는 불//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그 불타는 맹세가/번개같은 네 숨쉴에 어려오누나//심장에 불타는 그 맹세로/은한해 기적과 혁신의 불로 타오를/처녀야 네 모습이/나에겐 제일로 고와//

- 함웅진, 「네 모습이 제일 고와」³⁰⁾

이처럼 단시는 말 그대로 형식상 짧은 시를 가리킨다. 북한의 일반적인 시들은 남한의 서정시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긴 편임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형식상으로는 단시만큼이나 짧지만, 공공장소에 붙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정시 갈래가 있다. 이른바 벽시가 그것이다.

견직공이여/말 못하는 기대라고/소홀히 다루지 말자/그대의 모습/기대에 비

25) 장용남(1990), 『서정과 시창작』, 문예출판사, 262쪽.

26) “서정시와 함께 서사시도 쓰고 서정서사시도 써야 하며 서정시에서도 어느 한두가지 형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 가지 형식을 다 리용하여야 한다.”

김정일(1992),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232쪽.

27) 최길상(2006), 『시문학』, 문학예술출판사, 23~25쪽.

28) 조수련, 「우리는 졸업반이다」, 『청년문학』, 2013년 6월호, 50쪽.

29) 금성청년출판사 저(1982), 앞의책, 145~148쪽.

30) 함웅진, 「네 모습이 제일 고와」, 『청년문학』, 2013년 4월호, 32쪽.

껴있다//자기 살점처럼/기대를 아끼고 /자기심장처럼/기대를 소중히 다룰때//그대 아름다운 량심의 모습/ 기대에 비끼리//기대는 언제나/거울처럼 알른알른하고/만부하의 동음은 높이 울려/생산정상화의 제품이/폭포처럼 쏟아지리/사람들 얼굴마다 웃음꽃 피어나리//

- 김금식, 기대는 견직공의 모습, 31)

앞서 단시와 비교해 보면, 두 작품 모두 제사공이나 견직공을 노래하고 있지만 벽시의 경우가 더 직관적으로 독자에게 다가오는 만큼 호소력과 선동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현대 조선말 사전에서 ‘시초’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대상에 침투하여 생활하는 과정에 창작한 시들 중에서 뽑아 쓴 시 장르로 정의한다. 따라서 시초는 방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여행하거나 작업 현장에서 쓰는 것으로, 『청년문학』에 수록된 시초들은 대부분 각 노동단체 소조원들이 노동현장에서 느낀 점을 쓰거나 소년단 대원들이 김일성 유적지 등을 돌아다니면서 쓴 작품이 주를 이룬다. 『청년문학』에 작품을 수록한 작가층이 중학교 학생부터, 군인, 공장직원, 대학생, 전문 문학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음으로 서사 장르의 하위 갈래를 살펴보자.

	편수	비중
단편소설	102	52.8%
일화	31	16.1%
전설	24	12.4%
설화	16	8.3%
벽소설	10	5.2%
중편소설	3	3.0%
우화	5	2.6%
과학소설	2	1%

[표 4] 서사 장르 하위 갈래별 편수와 비중

서사 장르에 해당하는 작품의 편수는 총 193편이었다. 소설 갈래 가운데는 잡지면의 한계상 주로 단편소설이 실리는 경향을 보인다. 102편의 단편소설이 실리는 동안, 중편은 단 3편이었음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한편 우리에게 생소한 장르인 ‘벽소설’은 단편보다도 짧은 형식을 말한다. 이는 한두 쪽 정도의 짧은 형태로 사건과 이야기를 담아 작업 짬이나 휴식시간에 흥미 있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진 갈래로서 기동성과 전투적 호소성이 강하다.

서사 장르에 포함된 ‘전설’, ‘설화’, ‘일화’는 각기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것인데, ‘전설’은 주로 김일성과 관련된 내용, ‘설화’는 주로 김정일의 모계, 즉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일화’는 주로 김정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목할 점은 주로 김정일이 군대를 순시하거나 생산 현장에 독려한 내용을 담은 ‘일화’ 갈래에, 2013년 이후로는 김정일과 함께 김정은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혁명일화나 설화와 달리, 인민일화나 인민설화는 노동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 숨은 영웅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기도 한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북한의 소설문학에서 ‘과학소설’ 혹은 ‘과학환상소설’의 창작이 장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사실주의를 강조해 오던 북한에서 과학환상소설에 관한 창작독려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과거에는 과학환상문학을 적극 창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과학기술지식을 배워주는 동시에 과학에 대한 탐구심, 자연을 정복하려는 의욕을 북돋아주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깊었다. 32) 하지만 최근 북한의 과학환상소설 창작 및 읽기 독려는 이러한 이유 외에도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 건설과 같은 북한의 당 정책과도 관련된다.

환상소설을 많이 창작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중략) 환상소설작가들은 사회현실을 환상적으로 그리는데서 이룩된 경험과

31) 김금식, 「기대는 견직공의 모습」, 『청년문학』, 2013년 5월호, 40쪽.

32) 리창유,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적 환상」, 『조선문학』, 2012년 11월호, 51쪽

교훈에 기초하여 통일된 우리 조국의 앞날이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된 우리 조국의 모습, 자주화된 새 세계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그려낸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여야 한다.³³⁾

우리 작가들은 참신하고 독창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우리 식 환상을 대담하게 펼친 과학환상문학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지피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에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작가들이 지닌 사명과 본분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³⁴⁾

북한의 환상소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인 인간이나 생활을 묘사대상으로 환상세계, 환상적인 화폭을 창조하는 것을 그 특성으로 하는데³⁵⁾ 주로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청년문학』에 실린 환상소설 역시, 화성과 소행성 충돌, 그리고 뇌파컴퓨터연구라는 제재를 다룬 「다시 만난 두 사람」이나 지구 전류 연구를 통해 해양 자원 개발을 이루어낸 내용을 다룬 「두 극의 방정식」처럼 과학이나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다.

3.3 『청년문학』 수록 작품의 제재 및 주제 분석

『청년문학』은 권별로 3~4개의 큰 주제를 바탕으로 작품을 실게 되는데, 그 구성은 ‘특집 및 기획주제’, ‘자유 주제’, ‘문학통신원 교실’³⁶⁾을 기본 구조로 한다. 2012년 1월호부터 2014년 12월호까지의 잡지에 수록된

월별 주제의 경향을 살펴보면 기존 김정일 체제를 계승, 유지하는 측면과 더불어 김정은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경향도 엿보인다.

먼저 ‘특집 및 기획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1월	김일성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	영원한 태양의 축복속에 밝아온 뜻깊은 새해	위대한 선군령장 높이 모신 조선의 새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2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가자	철세의 애국자 인민의 아버지의 한평생	2월의 강산에 차넘치는 그리움의 대화
3월	함남의 불길따라 총돌격 앞으로	당의 령도 따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당의 령도따라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4월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붉은기 한생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갈 인민의 영원한 수령	우리 수령님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
5월	백두의 혁명정신은 영원한 조선의 정신	백두산 위인들의 혁명업적 만대에 빛나라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당의 만년재보
6월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당의 영원한 총비서	우리는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라	복수자들은 선언한다
7월	우리는 언제나 7.27에 산다	영원 불멸할 수령님의 전승업적	승리의 7.27은 영원하리라
8월	김정은장군님 높이 모신 태양조선의 청춘	축복을 받으라 김정은 시대의 청춘들이여	원수님 높이 모신 태양조선의 청춘들
9월	주체조선의 존엄을 빛내이신 위대한 한평생	우리 수령님은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위대한 우리조국
10월	김정일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최고 정화	조선노동당은 승리와 영광의 가치	어머니당, 그 이름과 더불어
11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강산에 차넘치는 명국 조국찬가의 메아리	당의 령도따라 백송을 펼쳐가는 선군조선의 기상
12월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우리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는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표 5】 『청년문학』 특집 및 기념일 수록 주제

대체적으로 보아 특집 및 기획 주제는 공화국의 명절과 유관한 내용을 매해 반복하고 있는 듯하다. 가령, 매년 1월은 ‘양력설’을 주제로 ‘영원한 태양의 축복 속에 밝아온 뜻 깊은 새해’, ‘위대한 선군령장 높이 모신 조선의 새해’ 등의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2월은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 4월에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과 ‘조선인민군 창건일’, 7월은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8월은 ‘조국광복의 날’과 ‘청년절’, 9월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 10월은 ‘조선로동당창건일’, 12월은 ‘김정숙의 생

33) 리현순(2007), 『문학형태론』, 문학예술출판사, 앞의책, 95~96쪽.

34) 리장유,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적 환상」, 『조선문학』, 2012년 11월호, 53쪽.

35) 리현순(2007), 앞의 책, 93쪽

36) ‘문학통신원 교실’이라는 주제는 고정적으로 수록되는데 『청년문학』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전문 작가의 작품 지도평이나, 문예상식, 청소년에게 들려줄 경구 및 격언, 조선 속담 등을 주로 담는다.

일'과 관련한 주제를 반복해서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전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이러한 관례적인 특집 및 기획 주제가 아닌 자유주제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다. 김정일 시기의 『청년문학』에서는 작품의 제재나 주제에 '청춘', '미래', '앞날' 등과 같은 젊음의 이미지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물론 김정일 체제에서도 『청년문학』답게 '청년절'이 열리는 8월의 경우 청춘을 소재 및 주제로 하는 작품이 실리기는 하였지만 최근 들어 그 횟수와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에 대한 추모 기간이자 김정일의 권력 승계 시기였던 2012년 초중반을 지나면서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2년 10월 이후부터 '청춘'과 관련한 제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청춘의 목표는 10대·20대의 영웅'이라는 주제가 『청년문학』에 고정형식의 주제로 수차례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김정일이 어린 나이에 김정일의 후계자가 된 사실에 기인한다.³⁷⁾ 김정일의 어린 나이는 자칫 그의 지도력에 대한 북한 내 군부의 반발 및 북한주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김정일은 김정일과는 다른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김정일은 집권 초기 유교이념에 입각한 혈통적 계승성을 자랑하는 전략을 사용했으나³⁸⁾ 김정일은 자신의 '젊음'이 가진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해 활기차고 긍정적인 청춘 혹은 청년이라는 이미지로 인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지도자의 모습을 내세우는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청년문학』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37) 김일성이 북한의 정권을 잡았을 때의 나이가 약 30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들어, 김정일은 김정일과의 유사성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조부인 김일성과의 공통점을 선전하기도 하였다.

38)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력 승계 당시, 첫째 부인의 아들이자 장자라는 유교적 이념에 근거해 적장자이며, 자신의 어머니 역시 항일혈통출신이라는 혈통적 계승성을 내세웠다. 이에 반해 김정일은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되 자신이 장자가 아닌 김정일의 삼남이었으며 생모인 고영희가 제일동포 출신이기에 '항일 순수 혈통'도 아니라는 약점이 존재한다.

물론 『청년문학』의 작품 중에는, 졸업과 동시에 자신을 키워준 당의 부름에 앞장서겠으며 당이 우리에게 미래를 맡기었으니 인민의 공사를 하는 데 건설자재가 부족하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젊은 청춘이기에 잘 해낼 수 있다는 식의 담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별다른 중장비도 없이 청춘의 육체노동으로 힘든 건설을 이겨냈다는 김정일 시대의 담론³⁹⁾이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이러한 당위적 담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즐겁게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한다는 담론을 생성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청춘 담론은 '젊음', '미래', '앞날' 등으로 모습을 바꾸거나 기존의 '선군' 관련 소재와는 다른 새로운 소재와 결합함으로써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김정은 시대의 차별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마치도 물우에 떠있는 꽃배런듯싶은 풍치수려한 룡라도에 자리잡은 룡라인 민유원지에도 웃음꽃바다가 펼쳐졌다. 문어회전반, 회전비행기, 급강하탑.. 울긋불긋 펼쳐져 있는 각종 유희기구들 앞에 아이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하기가야 눈바람이 뽕뽕 불어대는 겨울에도 새로 꾸려진 공원들마다에서 로라스케트를 타며 밤을 모르던 아이들이 아닌가.

동생의 세계에 끌려 회전때메로 다가가고 있을 때 어린아이의 칭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어린아이가 회전매를 타겠다고 하니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끌고 할머니는 안된다고 말리며 실갱이질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웃음속에 지켜보던 관리인이 살뜰하게 알려주었다.

"할머니, 걱정말고 태우십시오, 이 회전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타보신 유희기구입니다." (중략)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안겨질 또 하나의 선물이 마련된 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유희장을 돌아보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 어느 한 유희기구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함께 저 관성단차를 타보자고, 이제 손자, 손녀들을 거느리고 이 유희장을 찾아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렇게 하늘을 나는 관성단차를 보면 선뜻 아이들의 손목을 놓아주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타보았다는 것을 알면 어서 타라고 하며 등을 떠밀어줄것이라고...어쩌면 우리의 김정은 원수님은 어버이장군님과 꼭

39) 김성수(2001), 「북한의 '선군혁명'과 통일문학의 이상」, 『통일과 문화』 창간호, 통일문화학회, 102쪽.

같으실가.

—조수미, 「어서타거라」⁴⁰⁾

놀이기구가 위험할지 모르니 몸소 타보아 어린이를 걱정한다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김정은의 모습은 나이는 어리지만 한없는 따사로움과 친근함으로 인민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이미지는 실제로 그가 수행한 여러 가지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 권력 승계 후 김정은은 무엇보다도 룡라유원지 건설이나, 마식령스키장, 옥류아동병원과 같은 시설 건설에 매달렸다. 또한 김정은은 ‘청년’을 위한 건설 사업을 벌이는 한편 북한의 여러 공식 행사 중 ‘소년단창립기념’과 ‘청년절’에 더 많은 공을 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지지가 약한 북한 보수층 대신, 청년 계층의 확고한 지지를 받기 위함과 동시에 과거의 딱딱하고 강압적인 선군에서 벗어나 선민을 기치로 내세우고 자신의 ‘젊음’의 약동성과 친근한 이미지로 인민에게 다가가려는 정치적 행보의 발로로 보인다. 이것의 문학적 형상화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문학』이다. 이러한 사회교육적 차원의 문학교육을 통해 북한은 학교의 공식적인 문학교육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동시대 및 당대의 이슈를 문학교육에 반영하기 힘든 우리의 구조와는 사뭇 다른 것이기도 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의 문학교육이 사상교육 중심이며 학교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보임과 동시에, 사회단체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문예지 중 하나인 『청년문학』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교육으로서의 북한문학

교육의 한 모습을 살펴려고 했다.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문학교육은 개인적 문학능력 신장과 이를 통한 자발적 문학활동이라는 목표를 가진 우리와 달리 사회주의 체제에 적합한 인물을 위한 사상교양의 측면이 강했다. 쉬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상교양의 특성상 북한의 문학교육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상호병진하는 특성을 보이인다. 특히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은 사상교양의 두 축으로서 사상교양을 상호 보완 및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의 김정은 통치기간 동안 북한의 『청년문학』에 수록된 작품을 분석한 결과, 북한청년들이 투고에 선호하는 장르는 ‘서정’, ‘서사’, ‘교술’, ‘극’ 순이었다. 그 중 ‘서정’과 ‘서사’에 수록된 세부장르를 살펴보았는데, ‘서정’ 장르에서는 다른 문예잡지와 달리 『청년문학』에 유독 ‘가사’ 장르가 많이 수록됨을 알 수 있었고 ‘서사’ 장르에서는 ‘환상소설’의 창작을 장려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당의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재와 주제의 측면에서 살펴본 『청년문학』은 주제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북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수령형상화와 주체사상 옹호라는 큰 담론은 유지하면서도 김정일 시대와 다르게 ‘청춘’이나 ‘젊음’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북한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 했으며 ‘청춘’과 ‘젊음’의 이미지에 룡라유원지, 롤러스케이트의 제재등과 결합하여 미래의 청년을 알뜰하게 살피는 따뜻하고 능력있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화하려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본 고에서는 『청년문학』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청년문학』에 실린 문학텍스트 자료 전체의 윤곽과 전체적 양상을 살펴보았을 뿐 이를 통해 드러나는 북한문학교육과 관련한 여러 문학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하겠다.

40) 조수미, 「어서 타거라」, 『청년문학』, 2013년 5월호, 41쪽.

참고문헌

<자료>

『청년문학』, 2012년 1월호~2014년 12월호.

『조선문학』, 2012년 11월호.

<논문 및 단행본>

금성청년출판사 지(1982), 『주체의 학습론』, 금성청년출판사.

김성수(2001), 「북한의 '선군혁명'과 통일문학의 이상」, 『통일과 문화』 창간호, 통일문화학회, 86~121쪽.

김일성(1971), 『김일성저작선집 2권』, 인민출판사.

김일성(1975), 『김일성저작선집 3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정일(1991),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1984),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1992),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우(2014), 통일 시대를 위한 시 교육의 방향 모색, 『2014년 한국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어문학회.

김중신(2014), 「통일시대 어문교육의 방향」, 『국어국문학』 168집, 국어국문학회, 93~121쪽.

박영목, 이인제(1998),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5집, 이중언어학회, 269~293쪽.

사회과학원 지(1978),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후의 고전적로작'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해설논문집』, 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원 지(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 사회과학출판사.

이인제(2005), 통일 한국의 국어 교육과 교육 과정 통합의 방향, 『국어교육』 117집, 한국어교육학회, 177~232쪽.

장용남(1990), 『서정과 시창작』, 문예출판사.

전수태(2010), 남북통일시대의 국어교육의 방향 분단국의 통일 공간과 교육 용어, 『국어교육』 131집, 한국어교육학회, 1~23쪽.

전태성(1991), 『사상교양에 대한 주체적리론』, 사회과학출판사.

주재우(2015), 통일 이후 고전문학 교육과정 개발 방향, 『어문학』 127집, 한국어문학회, 231~254쪽.

최길상(2006), 『시문학』, 문학예술출판사

최현섭(1999), 통일 대비 국어교육 정책, 『선청어문』 27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61~181쪽.

최현섭 외(1996),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구」, 인천교대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학우서방 편(1963), 『문학교수법』, 학우서방출판사.

한국교육개발원 외(1998),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 「교과교육에서 통일교육 강화 방안 연구: 초등도덕, 사회, 국어과의 통일교육 자료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지선(2013), 북한 문학 교육 연구 『국어문학』과 『문학』 교과서 비교 고찰, 인하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재찬(제1 저자)

☞ 소 속: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교수

☞ 주 소: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609호

☞ 전자우편: iamjc@hanyang.ac.kr

☐ 임인화(제2 저자)

☞ 소 속: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 주 소: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01호

☞ 전자우편: iminhwa@me.com

◎ 논문 접수: 2015년 5월 10일

◎ 심사 기간: 2015년 5월 20일 ~ 2015년 6월 12일

◎ 게재 결정: 2015년 6월 15일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Educational Aspects of Literary Education in North Korea

Chung, Jae-chan · Im, In-hwa
(Hanyang University) ·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educational aspects of literary education in North Korea under the administration of Kim, Jong-eun by analyzing 『Cheongnyeon Munhak』, a North Korean literary magazine targeting adolescent readers in the regime.

The educational goal of North Korea is to bring up communist-type individuals needed to maintain the regime and do the propaganda according to the socialist education thesis of Kim, Il-sung. It is literature that has performed its functions as an essential instrument to attain the goal. North Korea makes its efforts in the dimension of social education as well as school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educational goal. In North Korea, social education is usually provided by a network of schools, social culture agencies, and related agencies, which mainly use a literary magazine as one of their educational media. In the regime, all magazines are published by the party including 『Joseon Munhak』, 『Children Munhak』 and 『Cheongnyeon Munhak』 of which 『Cheongnyeon Munhak』 mainly targets young people aged 14~30 and publishes the works of professional writers and common adolescents and also professional writers' criticisms of works by common adolescents, thus drawing attention in the area of literary education.

The present study reviewed the literary works published in monthly 『Cheongnyeon Munhak』 from January, 2012 to December, 2014 by the genres and topics and examined the works published in the magazine by the

genres, percentage of topic, and aspects and the forms and discourses of literary education provided to adolescents in North Korea.

Keywords: unification education, literary education, literary education in North Korea, social education in North Korea, Cheongnyeon Munhak,